

동아쏘시오홀딩스 '25년 4분기/연간 실적발표 스크립트

'25년 연결실적

- '25년 연결 매출은 주요 사업회사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한 1조 4,298억원 달성. 동아제약은 7.0%(7,263억원), 에스티젠바이오 76.2%(1,037억원), 용마로지스 5.8%(4,238억원) 성장. '25년 영업이익은 에스티젠바이오(308.6%)와 동아에코팩(흑자전환)의 증가에 힘입어 19.1% 증가한 978억원. '25년 4분기 영업이익 26.4% 감소는 동아제약 '24년 4분기 일회성 환급금 유입에 따른 기저효과와 에스티젠바이오 '25년 4분기 일회성 비용 발생이 주 원인.

'25년 사업회사별 실적

동아제약

- '25년 매출은 일반의약품부문(26.4% yoy) 성장 주도로 7.0% 증가한 7,263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매출 상승에도 원자재비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원가율이 높아져 2.0% 증가한 869억 원 기록. 4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24년 4분기 일회성 환급금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 '26년 동아제약은 경기 회복 기대와 전 부문 고른 성장으로 '25년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 기대.
-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25년 박카스부문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연초 가격인상과 6월 말 출시한 신제품 얼박사 판매 호조로 2.1% 성장. 얼박사는 총매출기준 '25년 198억원 판매. '26년 박카스부문은 지난해 가격인상에 따른 수량 감소 회복과 얼박사 유통채널 확대를 통한 성장, 신제품 개발 등으로 5% 이상 성장 예상.
- '25년 일반의약품부문은 피부외용제 3종과 신제품의 성장으로 26.4% 성장. '25년 노스카나 240억원(전년 209억원, 14.7% 증가), 애크논/린 255억원(전년 203억원, 25.9% 증가), 멜라토닝/노사 185억원(전년 116억원, 59.1% 증가). 신제품도 지속적으로 발매, 성장 중. 특히 '24년 하반기에 발매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맥스콘드로이틴은 '25년 145억원 매출 달성. 그리고 '25년 9월 출시한 판피린 나이트, '25년 10월 출시한 챔큐비타시럽 등도 선전. '26년에도 일반의약품부문은 지속적인 피부외용제 성장과 신제품 발매로 두 자릿수 성장 예상.
- '25년 생활건강부문은 건강기능식품시장 침체, 소비 둔화, 경쟁 과다 등으로 5.7% 감소. 특히 주요 브랜드인 오쏘몰이 시장환경과 경쟁제품 영향을 많이 받으며 8% 가까이 감소. 다만, 신제품 듀오버스터, 가그린스프레이 등이 선전한 것은 긍정적. '26년 오쏘몰 브랜드는

SKU 다변화, 제품추가도입(라인확장), 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재성장하고 신제품 출시 및 성장으로 5%내외 성장 계획.

- 더마 파티온 브랜드는 국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 잡으며 15.3% 성장한 246억원 달성. '25년 10월 다이소 출시, 지난 1월 국군복지단 입점 등 지속적으로 유통 채널 확장하며 트러블 기능성 화장품의 자리를 잡아 감. 해외는 중국, 일본, 미국 중심으로 인플루언서(KOL) 및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추진 중. '25년 해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26년은 새로운 전략 및 마케팅으로 성장 기대.

에스티젠바이오

- '25년 매출은 스텔라라BS 이물도사의 상업화 물량과 신규 수주로 전년대비 76.2% 증가한 1,037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가동률 상승으로 308.6% 증가한 71억원 기록. 4분기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증가 등 일회성비용 발생으로 8억원 적자 발생. 에스티젠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실사 및 인증을 통해 '25년까지 총 9개국 글로벌 트랙 레코드 확보했으며, 신규 고객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 최근 시장 환경은 미국 생물보안법 시행 및 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 추진 등으로 글로벌 CMO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춘 에스티젠바이오에게 우호적 환경 조성. 특히 단일사이트에서 DS와 DP(PFS)를 GMP 역량으로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로써,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고객사 유치 가능. '26년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로, 시설투자/글로벌트랙레코드 확장/이익향상 등에 집중할 예정.

용마로지스

- '25년 매출은 경기침체 및 소비둔화에 따른 물류시장 악화에도 적극적인 주력산업군 신규 화주 유치와 물류 영역 확대로 5.8% 증가한 4,238억원 달성. 영업이익은 매출상승과 운영 관리 효율화로 10.6% 증가한 210억원. '26년까지 용마로지스는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27년 안성 신허브센가 완공/가동되면 고 성장 가능.

끝.